

“운문댐 30만t, 안동·임하댐서 70만t 확보 검토”

홍준표 대구시장, 정부와 첫 공식 만남 “해평협정 문제 공감”

대구시 하루 필요 취수량 79만t→100만t로 상정 K2 이전 후처리 개발 대비

안동·임하댐을 대구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두고 대구시와 정부가 첫 공식 협의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방문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장은 5일 수성알파시티 내 ACT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구시의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기존 ‘맑은물 상생협약’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안으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동·임하댐 취수원 활용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대구시의 물 확보량은 하루 79만 톤(t)이지만, 향후 K-2 및 군부대 이전 후처리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필요한 수량을 하루 100만t으로 상정했다.

이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운문댐 30만t과 관로 추가 건설을 통해 안동·임하댐에서 70만t을 확보하는 방안 ▷매곡 정수장 40만t, 운문댐 30만t, 관로 증설을 통해 안동·임하댐 30만t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홍 시장이 식수원을 댐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가 예산상 제약을 감수하고라도 1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발주해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술 분야와 경제성 분석 등은 6개월 내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홍 시장은 강물 지표수를 취수하는 현재 식수 정책을 장기적으로 식수댐을 건설해 댐물을 취수하는 방안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용수를 걸러 재활용하는 중수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건넜다.

이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종현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맑은물 상생 협정 파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고, 기존 협정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던 정부 입장에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5일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진입부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노란색 간판 모양의 ‘옐로카펫’이 설치돼 있다.

정수장 위치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 중 안동을 방문해

안동·임하댐 취수원 활용에 관한 상생 협약을 안동시와 체결할 계획이다. 장성현 기자 shjang@maeil.com

알립니다

‘2022 함께 걷는 경주 왕의 길’에 초대합니다

‘함께 걷는 경주 왕의 길’은 신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있는 도읍 경주에 골골이 스며 있는 역사의 숨결을 찾아 함께 느껴 보고 알아 가는 소중한 시간 여행입니다.

- ▶일시 및 장소: 2022년 10월 22일(토) 오전 9시 30분
-장소: 경주시 보문로 명활성(집결)
▶참가 접수: 선착순 1,000명
-참가비 없음. 온라인 접수 www.imaeil.com
▶행사 진행: 개회식, 걷기 및 미션, 체험·간식 부스 운영, 미니 콘서트 및 레크리에이션, 경품 추첨
▶문의: (053)585-2800(운영사무국)/ 문의 시간(오전 10시~오후 6시)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每日新聞 ◆후원: 경상북도 경주시
◆도움 주신 곳: 영남대학교 ·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가족 부양하는 1020 “도와주세요”

복지부 실태조사...대구 ‘영 케어러’ 40명
市 직접 방문 긴급복지 서비스 필요
자발적 참여 의존 부실조사 지적도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영 케어러’(Young Carer·가족 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대구에 있는 영 케어러 40명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 10년간 아버지와 단둥이 산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영 케어러의 간병 살인’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2월 영 케어러 지원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대구에는 모두 40명의 영 케어러가 도움을 호소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중·고등·대학교, 청년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상대로 모바일 방식의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자는 전국적으로 4만4천832명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중 지원이 필요한 영 케어러 731명을 추려

를 바탕으로 긴급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실태조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응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대상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2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에만 18만4천~29만 5천 명의 영 케어러가 있다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복지부가 이번 조사로 발굴한 영 케어러 731명은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추정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영 케어러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김보영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는 “영 케어러 특성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인적 네트워크상에서 도움을 찾는 경우가 많다. 병원, 학교, 지자체 등의 기관이 먼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 케어러들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조차 못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이는 영 케어러들의 학업과 진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물질 및 의료적 지원과 함께 심리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현재 기자 giswo0302@maeil.com



2022 청송사과 트레일런
Apple Trailrun 2022

청송사랑상품권 1만원 증정

- 일 시 : 2022년 10월 16일(일) 오전 10시
○ 장 소 : 산소카페 청송정원
○ 종 목 : 산악하프코스, 10km, 5km, 청송정원 걸기코스
○ 주 최 : 청송군, 매일신문사
○ 참 가 비 : 산악하프코스, 10km코스-3만원

5km코스, 청송정원 걸기코스-2만원

- 기 념 품 : 청송사랑상품권 1만원, 배번호, 기록칩, 완주메달, 기록증, 간식 등
○ 행사내용 : 마라톤대회 진행, 치어리더 공연, 청송사과 시식회 등

○ 참가접수 : www.csmarathon.co.kr

○ 문의전화 : 02-2208-7242



대구~후쿠오카·도쿄 하늘길 다음 달 열린다

오사카 노선도 운항 재개 가능성
중화권 부활해야 관광업계 활기

다음 달 중순부터 대구공항 일본 국 제선이 부활한다. 대구와 후쿠오카, 도쿄를 잇는 정기편이 매일 뜰 예정이다. 지역 여행 및 숙박업계에 훈풍이 기대된다.

일본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2년 6개월 만에 외국인 무비자 개인 여행을 허용하고 5만 명이던 일일 입국자 상한선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은 다음 달 11일부터 대구~후쿠오카 노선을 재취항하고, 대구~도쿄 노선도 다음 달 14일부터 운항한다. 엔화 약세 등으로 일본 여행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항공사나 여행사들도 판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16일까지 일본 노선 왕복 항공권 예약 시 할인코드 ‘GOJAPAN’을 입력하면 5% 할인 운임을 적용한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해 후쿠오카 9만1천200원, 도쿄 12만2천300원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일본 국제선 추가 취항 가능성도 열려 있다. 티웨이항공은 코로나19 이전 대구공항에서 오사카, 오키나와, 삿포로 노선을 운항했다. 오사카 노선은 11월 중 운항 재개 가능성이 있다. 제주항공도 대구공항에서 일본 노선 재취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여행사 관계자는 “엔화 약세 등

으로 일본 여행 선호도가 높아졌다. 재취항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며 “상품 및 판촉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만 지역 관광업계가 살아나려면 중국과 동남아 노선이 함께 재개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구 한 호텔 관계자는 “지난달 베트남 등의 노선을 대구에서 매일 운항하기로 했는데 예약률 저조로 일부 실현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번에도 항공사 고객 결과에 따라서 운항 횟수가 줄어들 여지도 있다고 본다”며 “일본 관광객 단체 투숙객 비율이 20% 내외라 지역 관광객이 늘려면 중화권 등 다른 노선 재개가 더 절실하다”고 했다. 김윤기 기자 yoonki@maeil.com